

## 제32회 한일 · 일한 포럼 의장 성명서

### “국교정상화 60주년을 향해”

제32회 한일 · 한일포럼은 「한일 협력의 새로운 지평 - 양국 관계를 넘어서」를 주제로 2024년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한일 양국에서 총 54명의 전문가가 참가하여 '한일 정치외교 협력', '한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기축', '한일관계를 지탱하는 시민사회 교류', '주니어포럼과의 대화', '국교정상화 60주년을 향하여' 등 5개 세션의 논의를 통해 새로운 한일 협력의 의미와 방향을 모색했다. 8월 30일 오후에는 한국측 참가자와 일본측 간사단이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총리대신을 예방했다.

이번 포럼의 첫날 논의에서는 지정학적 갈등으로 요동치는 최근의 국제정치 정세 속에서도 한일 양국에는 많은 공동의 이익과 공통의 과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국내 정세와 외교적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일 전략 파트너십 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공급망 재편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안보의 필요성과 합리적 경제적 이익이 반드시 양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반도체 및 주요광물의 공급망 협력 등 다양한 한일 협력의 과제가 논의되었다.

둘째 날에는 시민사회 차원에서 다방면의 중층적 한일 교류가 착실히 진전되고 있는 것이 소개되었다. 한일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등의 과제도 있지만, 당사자 간에는 인식의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주니어 포럼' 참가자들과의 대화에서는 청년 사이에서는 과거사 문제 등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려는 의지가 확고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되었다. 한편, 이러한 사회 차원의 건전한 관계가 정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강하게 표명되었다.

돌이켜보면, 당초 한일 · 일한 포럼은 1990년대 초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처음으로 양국 간 정치외교 문제로 대두되었을 때, 1993년 양국 정상의 합의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목적은 정부 간 협상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양국 국민의 마음의 응어리를 솔직한 대화를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국민 차원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

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 이후 32년간 한일·일한 포럼은 논의가 격렬하게 부딪히는 시기도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어 왔다. 그리고 정부 간 관계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는 함께 고민하고 항상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잊지 않는 민간 대화의 장으로 발전해 왔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에는 제33회 한일·일한 포럼은 서울에서 개최된다. 앞으로의 한일관계는 과거에만 구애되지 말고, 공통의 미래를 모색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보면, 한일 간 과거사 문제는 우리를 과거로 되돌리는 속박이 아니라 공감대를 키워나가는 노력을 통해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국내 정치 대립의 첨예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퇴임 이후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가까운 미래를 반드시 낙관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솔직하고 냉정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본 한일·일한포럼의 가치가 결코 퇴색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마지막 날 '국교정상화 60주년을 향하여'라는 주제의 세션에서는 한일관계의 이정표가 될 내년 포럼에서 구체적인 제언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합의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발히 논의했다. 지금의 한일관계는 양국의 정치상황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본 포럼은 앞으로도 창설 당시의 정신을 잊지 않고, 시대 변화에 따른 세대교체도 진행하면서 한일관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4년 8월 31일 도쿄에서



한국측 의장  
유명환



일본측 의장  
오코노기 마사오